“영산강, 고대 中·日 문명 교류 통로였다”

중·일 전문가 주장… 영산강유역권행정협 22~23일 국제학술대회

영산강이 고대 일본, 중국 문명과 교류하는 통로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영산강의 문화생태와 문명교류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오는 22~23일 나주시 중흥골드스파에서 ‘영산강의 문명교류와 생활문화사’라는 주제로 열린다.

일본 타나카 토시아키(田中俊明) 교수(시가현립대)는 사전 배포된 주제논문을 통해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이 고대 일본과의 문명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피장자가 왜계(倭系) 백제관료설과 재지(在地)수장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타나카 교수는 “장보고 세력이 완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산강 유역까지를 포함한 집단으로 일본과도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영산강유역이 고대 일본과의 문물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비롯해 임사민(전 중국 영파박물관장) 영파시 문물교류연구소장은 중국과의 연관성도 주장할 예정이다.

임 소장은 “당나라 시기 동아시아 지역 문명특징으로 불교문화와 차문화, 무역문화가 영산강유역을 통해 전파되고 융합됐다”며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의 문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볼때 영산강의 문화유적·생태·인문환경·역사 등을 새롭게 발굴해 생산적으로 경제의 강, 문화의 강, 생태의 강으로 영산강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나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가 주최하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한국문명교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의 ‘영산강과 동아시아의 문명교류, 그 이해와 평가’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문명과 교류 ▲삶과 공간 ▲문화와 콘텐츠 등 3부로 나눠 19명의 국내외 저명한 전문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가족 사랑 ‘도토리묵 만들기’ 장흥지역 가족들이 최근 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토리묵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센터는 매월 한차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나주혁신도시 연관 기업들 입주땐

일자리 늘어 인력 공급 대책 서둘러야

나주시 금천면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연관 기업의 입주 시기에 맞춰 일자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공급 대책과 맞춤형 창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지난 19일 동신대 산학협력관 5층에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열린 ‘1인 창조기업과 창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할 경우 이주를 꺼리는 인력들의 이탈이 현실화되고, 연관기업들의 구인난이 예상된다”며 “창업이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임 시장은 “나주시는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들을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보증기관 기금출연과 이차보전 등 자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단지 개발, 행정규제 철폐 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시장은 “지난 5월 개원한 직업훈련원과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인 출신의 임 시장은 창업희망자들에게 “경영자의 길은 42.195㎞를 뛰는 마라토너처럼 외롭고 험한 길인만큼 어떤 어려움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시장은 자신의 기업경험을 회상하며 아이템 선정과 운영비 조달 등의 창업준비 요령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장흥 한우’ 주민참여 주식회사 출범

주주 170명 오늘 창립총회
친환경 축산단지 등 조성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우농가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한우 주식회사가 설립된다.

장흥군은 21일 군민회관에서 주민과 한우농가 등 170여명의 주주가 참여하는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 창립총회를 연다.

170여명의 주주가 현재 1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장흥한우주민㈜는 앞으로 20억원의 자본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흥한우주민㈜는 앞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장흥한우의 명품 브랜드 관리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단지 운영, 한우 종합타운 설립, 관광 체험형 한우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친화형 축산산지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사육 농가의 조직화와 기업화를 통해 품질 · 물량 · 안전의 경쟁요소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명흠 장흥군수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우산업이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 설립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농가 등이 모두 주식 1주 갖기 운동에 동참해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장흥한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성군, 끼 넘치는 청소년 그룹사운드 만든다

다문화 가족 자녀 함께 …이달말까지 희망자 모집

장성군이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소년 그룹사운드를 결성한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관내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계발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그룹사운드를 구성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보컬·드럼·일렉트릭 기타·베이스 기타·신디사이저 등 5개 부문으로, 음악에 대한 기본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바이엘’ 이상의 피아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청소년은 주 1회 이상 레슨에 참여해 지도를 받고, 지역축제 등의 행사시 공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성인으로 구성된 장성지역 대표 그룹사운드 ‘홍길동 밴드’의 악기별 개인 레슨 등 체계적인 그룹사운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061-390-7786)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영암·장흥·강진 3개군 상생 협약

영암군과 장흥군, 강진군이 건강을 테마로 한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상생과 동반성장에 나섰다.

김일태 영암군수와 이명흠 장흥군수, 황주홍 강진군수는 지난 15일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3개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세 군수는 영암읍 한대리와 장흥군 유치면 관동리, 강진군 옴천면 황막리가 만나는 해발 500여m 높이인 무명의 봉우리를 삼군봉(三郡峰)으로 명명하고 3개 군의 역사와 문화 등을 표기한 3면 표지비 설치와 군목(郡木)·군화(郡花)동산 조성, 정자와 산책로 등 탐방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키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삼군봉과 인접한 영암 뱅뱅이골 제2의 ‘기찬랜드’ 자연 계곡풀장과 장흥 유치휴양림, 강진군 옴천면 친환경농업특구 등을 연계하는 산책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일제강점기 군산 실상 연극 재연

극단 ‘둥당애’ 월명동 주민들과 함께…12월 초 무대에

군산지역 주민이 일제 강점기 당시의 실상을 연극으로 재연한다.

군산지역 극단인 ‘둥당애’는 월명동 주민과 함께 일제 강점기 당시(1930~40년대) 월명동 일대의 생활상을 그린 연극을 오는 12월 초께 무대에 올린다.

당시 군산지역내 최고의 번화가였던 월명동에는 조선은행과 나가사키 18은행, 세관 등 일본인들이 짓고 운영한 은행과 창고, 세관, 주택 등이 일부 보존돼 있다.

‘2011년도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연극에는 극단의 배우뿐 아니라 월명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실제 연극에 참여하게 돼 관심이 더욱 크다.

이번 연극은 당시 군산의 생활상을 담은 소설 ‘탁류’와 ‘아리랑’을 토대로 창작됐다. 군산에 산재한 각종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그 시대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그렸다.

이를 위해 극단 측은 주민 10여 명을 뽑아 지난 16일부터 연기지도에 들어갔다.

선발된 주민들은 두 달여간 군산시의 근대문화 역사에 대한 교육과 기초 연기훈련을 받고 매주 금·토요일에 3시간씩 연극 연습을 하게 된다.

극단 ‘둥당애’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가 근대문화 유산 보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마당에 그 시대에 살았던 주민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참고로 그 시대의 삶과 근대문화 유산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주 노송천 48년만에 자연하천으로 전주시 노송천이 48년만에 자연하천으로 복원됐다. 전주시는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옛 한양예식장에서 한국은행 앞(길이 230m)까지 노송천 복원공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단 유치’ 관권개입 논란

도, 100만명 서명 채우려 통·반장 동원해 반발
주민 자발적 참여 무색 … 온라인 서명도 문제

전북도가 도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통·반장까지 동원해 관권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지난달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공동 연고지로 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일부터 한 달간 도민의 53%인 100만 명을 목표로 대학가와 도내 곳곳의 주요 거리에서 유치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명운동 과정에서 통·반장들이 아파트와 유흥가까지 돌면서 서명을 받아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겠다는 당초의 ‘민간 주도’라는 명분이 퇴색하고 있다.

도내 일부 시·군은 최근 각 동사무소를 통해 통·반장에게 서명부를 일괄적으로 나눠준 뒤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 통·반장은 밤늦은 시간 아파트와 주택은 물론 심지어 술집이나 당구장 등을 찾아다니며 무작위로 서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는 업무가 통·반장의 공식적인 활동범위도 아니어서 일부 통·반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익산시 한 통장은 “민간이 앞장서서 유치한다던 프로야구단 서명까지 통·반장이 떠맡았다”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녁 늦게 남의 집을 방문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멋쩍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45 · 전주시 서신동)씨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데다 전북이 야구단 유치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서명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남들도 (서명)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면박을 주더라”면서 불쾌해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북 도민 100만명 서명’이 여의치 않자 19일 대형 포털사이트 2곳에 온라인 서명부를 개설해 30일까지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는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겠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전북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이나 직장인까지로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길거리 등 현장에서 직접 서명하지 못하는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도민이 아닌 사람이 서명해도 가려낼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순창사랑 상품권’ 지역경제 효자네

29억4000만원어치 판매
지역자금 역외유출 막아

‘순창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6월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이후 이달까지 모두 29억4000만원 어치가 판매됐다.

5000원군과 1만원권 두 종류인 ‘순청사랑 상품권’은 관내 543개 업소와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상품의 판매를 늘리고 지역 자금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를 냈다.

상품권 주요 구매자는 군청 공무원이 절반 가량(56%)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교육청, 농협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이 차지했다.

순창군은 지역 기관들과 상품권 사용 협약을 늘리고 각 향우회나 모임, 지역내 사업발주업체에도 상품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에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순창군을 포함해 8곳이며, 나머지 지역은 전통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뉴스 브리핑

내장산 단풍 예년보다 3~6일 늦게 시작

올해 지리산과 내장산 등 전북지역 단풍이 예년보다 3~6일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주 기상대에 따르면 올해 지리산은 10월 13일께 첫 단풍이 들어 10월 23일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장산 단풍은 10월 26일께 첫 단풍이 들어 11월 11일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대 관계자는 “10월 중순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으면서 단풍 절정이 예년보다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풍시기는 산 전체 높이로 볼 때 80% 이상 물 들면 절정기로 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내달 10일 ‘제 5회 도시의 날’ 개최

‘제5회 도시의 날’ 행사가 10월 10일 군산시청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산시는 2010 전국 도시대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함에 따라 올해 개최지로 선정됐다.

도시의 날 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군산시가 후원하는 도시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원도심 보존 및 활성화방안, 도시대상 10년 회고와 전망의 학술행사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표회▲U-City 우수사례 전시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방사선과학硏, 지역 연계 사업 설명회

정읍시와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는 지난 19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사업 제안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선육종연구팀 강시용·김동섭 박사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단풍나무 신품종 개발 ▲고기능성 블랙베리 품종 및 재배단지 육성 등 농업분야 5건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특산물에 대한 품종개발 및 브랜드화로 지역 산업화에 도움을 준다는데 공감하고, 국가 R&D사업비 확보 등 본격 추진키로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고인돌박물관 내달말까지 선사유적 사진전

고창 고인돌박물관은 10월 말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다양한 선사문화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돌, 생명을 담다’라는 주제의 ‘고인돌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최영진 사진작가의 고인돌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최씨는 지난 2000년부터 10여년 넘게 서해안 일대의 갯벌과 새만금 간척지역을 촬영해 여러차례 발표했으며, 2009년부터는 고창 고인돌유적을 찾아 촬영해 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음창영기자 young@